

# 도쿄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내일까지 함평서 개최

아시아시니어선수권 대회 최종선발전도 함께



도쿄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2 차 선발전과 아시아시니어선수권 대회 최종선발전이 11~14일 전남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대한레슬링협회와 전라남도레슬링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11월 열렸던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참가 선

수들을 비롯해 비(非)올림픽 체급 등 198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지난 11일 심판강습회를 시작으로 12일 오전 10시부터 체급별 국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함평군청 레슬링팀 선수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레슬링 자유형 53kg 동메달리스트인 김현주를 비롯해 김종민(그레고 63kg), 김경훈(그레고 67kg), 양시온(그레고 72kg) 등 총 4명이 참가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선수와 임원 등 1000여명이 함평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최민정, 쇼트트랙 4대륙 선수권 1500m·500m 금

최근 부상·체력 저하 고전 털어내…황대현도 금 2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22·성남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첫 날부터 금메달 2개를 차지했다.

최민정은 1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첫 날 여자 1500m와 500m 정상에 올라

최근 부진을 씻어냈다.

최민정은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이번 시즌 고전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여자 쇼트트랙 최강자로 모습으로 돌아왔다.

최민정은 1500m에서 2분41초 270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

희민(18·평촌고)은 2분41초 367로 은메달을 차지했고 함께 결승에 올랐던 김아랑(25·고양시청)은 2분 41초 447로 4위에 자리했다.

최민정은 여자 500m에서도 43초 684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타트가 늦어 마지막 바퀴까지 최하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에서 바깥 쪽으로 치고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3명의 선수를 모두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자부에서도 황대현(21·한국체대)이 금메달 2개를 차지했다.

황대현은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140으로 1위에 올랐다. 함께 결승에 올랐던 박지원(24·성남시청)과 김다겸(23·연세대)은 실격됐다.

황대현은 이어 열린 남자 500m에서도 40초695로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같은 종목에서 김다겸은 40초923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스1

## “류현진 등 전력보강 토론토, 더 이상 만만한 팀 아냐”

미국 지역 매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구단 전망



2020시즌을 앞두고 전력을 강화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현지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지역 매체 ‘뉴욕 데일리 뉴스’는 1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구단의 2020시즌을 전망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뉴욕 양키스는 계릿 콜을 영입하면서 명

성을 되찾았다”며 “동부지구의 다른 팀들은 어떻게 양키스와 격차를 줄여나갈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토론토의 비시즌 행보를 조명하면서 올해 토론토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라고 평했다.

매체는 “이번 겨울 동부지구에서 토론토가 가장 바쁘게 움직였

다”며 “토론토는 류현진과 태劳务派遣를 영입하며 선발진을 보강했다. 또 제이슨 앤더슨을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1루수 트래비스 쇼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유망주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보비셋, 캐빈 베지오 루르데스 구리엘 주니어와 투수 유망주인 네이트 피어슨이 새 얼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이번 비시즌 토론토의 공격적인 투자 배경으로 저조했던 2019년 성적과 관중 수 감소를 지목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67승 95패에 머물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에 그쳤고 홈 관중 수는 2018년에 비해 57만5137명이 줄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토론토가 현재 전력이 완벽하다고 보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 경계해야 할 팀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토론토는 여전히 중견 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 박인비, 팬들이 뽑은 2010년대 최고 골퍼

박인비(32·KB금융그룹)가 팬들에 의해 2010년대 최고의 골퍼로 선정됐다.

미국여자골프(LPGA) 투어는 1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0년간 최고의 선수를 뽑는 팬 투표에서 박인비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LPGA 투어는 “박인비가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팬 투표 결승전에서 득표율 53%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팬 투표는 LPGA 투어가 우승 기록과 세계랭킹, 올해의 선수상, 평균 타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정한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6명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박인비는 미셸 위, 박성현, 리디아 고를 차례로 제치며 결승에 오른 뒤 결승에서도 헨더슨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18차례 우승, 6차례 메이저대회 타이틀, 2016년 리틀올림픽 금메달, 명예의 전당 가입 등 화려한 경력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